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박용규**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본 논문은 미군정기에 발행된 여성신문들을 여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군정기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가 5개나 발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여성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 3개는 여성이 발행인이었고, 대부분의 신문에는 적은 수나마 여성운동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런 여성신문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휴간이 잦고 발행기간도 짧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신문의 내용이 여성신문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다. 특히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여성해방을 위해 활동했다기보다는 대체로 국가수립을 둘러싼 정치활동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에 여성운동단체들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신문들의 논조도 이런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전히 성별 분업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논조를 보이며, 단지 현실적 필요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을 뿐이다.

키워드 : 여성미디어, 여성신문, 여성운동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군정기에는 『가정신문』, 『부녀신문』, 『부녀일보』, 『여성신문』, 『부인신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ygpark@mail.sangji.ac.kr

보』 등 무려 5개의 여성일간지가 발행되었다. 비록 대부분이 오랫동안 발행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5개의 일간지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1960년대 초에 잠깐 여성신문이 발행된 적이 있었지만,¹⁾ 그 이후 아직까지도 여성일간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시기에 5개의 여성일간지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기의 여성신문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다. 언론사 분야에서는 여성미디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여성사 분야에서는 여성미디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는²⁾ 해방 이전의 여성잡지에 관한 언론학 또는 역사학 분야의 일부 논문이 있을 뿐이고(김미령, 1985; 박용옥, 1996; 이경자, 1971; 이옥진, 1979), 미군정기의 여성신문을 다룬 연구는 아예 없다. 또한 미군정기를 다룬 여성(운동)사 분야의 논문들은 당시의 여성신문들을 자료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다(문경란, 1989; 송연옥, 1985; 이배용, 1996; 이배용 외, 1996; 이승희, 1991). 그 결과 아예 미군정기 여성신문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발행기간이나 제호조차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³⁾

1) 1957년에 주간지 『여성민보』가 잠시 동안 발행되었고, 4·19 직후인 1960년 7월과 8월에는 각각 『여성일보』와 『부인일보』가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 두 신문은 1961년의 5·16 직후 곧 시설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었다(한국신문협회, 1969, 593~595쪽).

2) 구한말의 『제국신문』은 여성을 주된 독자층의 하나로 고려했고, 여성계몽운동을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성미디어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국신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김영희, 1978; 김인옥, 1985).

3) 미군정기 여성신문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한 자료에는 여성신문 5개 중 『여성신문』을 제외한 4개의 창간일이 틀리게 나와 있다(이배용 외, 1996, 92쪽). 『한국신문백년: 사료집』에도 5개 중 『부녀일보』와 『부인신보』의 창간일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235쪽, 295쪽). 『부인신보』의 발행인이었던 박순천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데는 한국에서 언론사나 여성사 연구가 부진한 탓이 크고, 또한 여성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시각이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즉 여성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주류 미디어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주류 미디어는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어 왔으며, 대안적인 미디어로서의 여성미디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Steiner, 1992, p. 122). 이와 같은 경향 때문에 여성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고, 더욱이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가피 했던 것이다(김혜순, 1996; 최선렬, 2000).

이제 여성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좀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미디어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물론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여성미디어의 과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미디어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여성미디어들의 특성이나 활동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과 여성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여성미디어’(women's media)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여성주의 미디어’(feminist media)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teiner, 1992, pp. 122~131).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을 여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이 과연 당시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기에 발행되었던 5개의 여성신문이 여성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조를 보였

편집국장을 지낸 최태웅은 자신들이 활동했던 신문명을 『부인신문』이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다(박순천, 1978; 최태웅, 1978). 『부인신보』는 창간된 지 2년 뒤에 가서 『부인신문』으로 개제되었다.

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여성운동과의 직·간접적 관계 속에서 발행되었던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이 지녔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미군정기에 발행되었던 5개의 여성신문을 대상으로 하여⁴⁾ 여성운동과의 관계 및 논조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첫 째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이 여성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경영과 편집에서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여성신문들이 여성문제의 각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고, 주제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미군정기의 여성운동과 여성의 현실을 살펴보는 데는 미군정기를 다룬 여성(운동)사 논문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여성신문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여성신문들의 기사, 이런 신문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회고록, 기타 미군정기를 다룬 다양한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이런 문헌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성신문을 발행했고, 경영과 편집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⁵⁾

다음으로 본 논문은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신문의 여성 관련 사설에 대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즉 여성신문들의 여성문제에 관한 논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체 사설 중에서 여성 관련 사설만을 뽑아내서, 이를 여성의 계몽과 교육, 가정 생활, 사회 활동 등의

4) 『부인신보』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신문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5) 여성들의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하나로서, 또는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적 미디어의 확보를 위해 여성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Robinson, 1978; van Zoonen, 1995).

주제로 나누어 그 양적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고, 각 주제별로 어떤 주장들이 담겨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선 여성신문들이 여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에 관해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는 가정과 사회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 관한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신문의 '성별 분업'에 대한 입장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⁶⁾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enry, 1989). 한국의 경우 각 시대마다 중요한 민족적 과제에 의해 여성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김은실, 1994; 윤택립, 1994). 특히 미군정기에는 민족국가의 수립을 둘러싸고 좌우의 정치세력이 대립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여성신문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운동단체들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⁷⁾ 즉 여성운동단체들과 직·간접적 관계 속에 발행되던 여성신문들이 민족적 과제의 수행과 여성문제의 해결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사실에 나타난 주요 주장들을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미군정기 여성신문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좀더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6) 성별분업론은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세계에서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을 맡고, 남성은 사회라는 '공적' 세계에서 정치·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연정, 1999). 이런 성별 분업에 대해 여성신문이 얼마나 변화되고 차별화 된 인식을 보여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신문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7) 이배용은 미군정기의 여성운동이 "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배용, 1996, 209~213쪽).

2.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1) 여성신문의 발행 현황

미군정이 법령 19호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신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여성신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1946년 3월 21일에 창간된 『가정신문』이었다.⁸⁾ 이 신문의 발행인은 이취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매지인 『대동신문』을 발행하던 남편 이종형이 실제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다(정진석, 1995, 301~302쪽). 이 신문은 1946년 9월 26일에 휴간되었다가 6개월 만인 1947년 3월 26에 속간되었지만, 다시 네 달 뒤인 7월 26일에 종간되고 말았다.

뒤를 이어 1946년 5월 12일에는 우덕순을 발행인으로 한 『부녀신문』이 창간되었다.⁹⁾ 『부녀신문』은 14호로 종간되고 말았는데, 그나마도 현재는 창간호만 남아 있다. 『부녀신문』은 미군정기 여성신문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이었다. 『부녀신문』의 창간 직후인 1946년 5월 29일에 허가제를 규정한 법령 88호가 공포되면서, 새로운 신문의 창간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부녀일보』는 1946년 중반에¹⁰⁾ 대구에서 구자권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창간 직후 바로 휴간했다가 1946년 10월 23일에 7호를 내며 속간했

8)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서 『가정신문』 5호(1946년 3월 25일자)부터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자료집에는 창간호의 1면이 실려 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219쪽).

9) 『여성신문』 창간호에는 『부녀신문』이 1946년 7월에 창간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여성신문』 1947. 5. 20). 이것은 미군정 법령 88호가 공포되면서 허가번호(156번)를 새로 부여받은 날짜인 7월 3일을 창간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10) 『부녀일보』가 1946년 3월 17일에 창간되어 주2회 발행되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영남일보사, 1996, 77쪽). 그러나 1946년 5월 12일에 창간된 『부녀신문』보다 법령 88호에 의한 허가번호(234번)나 허가일자(7월 15일)가 늦기 때문에 대략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창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호인 1946년 10월 23일자 속간호에 “휴간한 지 불과 한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초기에 꾸준히 발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하지만 이 신문은 속간 직후에도 한 동안 격일간으로 발행되다가 1946년 12월 22일부터 일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부녀일보』는 1년 만인 1947년 12월 24일에 대구 지역의 다른 두 신문과 통합해 새로운 신문을 발행한다는 이유로 종간되고 말았다(계훈모, 1987, 332쪽).

미군정이 1947년 3월 26일에 공포한 공보부령 1호는 기존에 허가된 신문 등이 1947년 4월 20일 이내에 다시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현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10일간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기존 신문이 발행중지 중일 경우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시한인 1947년 4월 20일에 바로 『부녀신문』의 발행권을 이어 받은 『여성신문』이 황기성에 의해 창간되었다. 『부녀신문』의 지령을 이어받아 15호로 창간된 이 신문은 서둘러 창간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창간 초기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근근히 발행되다가 1947년 5월 20일부터 비로소 일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출발했던 이 신문은 창간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1947년 8월경에 종간하고 말았다.¹¹⁾

1947년 5월 3일에는 박순천이 발행인을 맡은 『부인신보』가 창간되었다. 고천구가 발행하던 『대한일보』를 개제해 발행된 이 신문도 창간 직후 잠시 어려움을 겪다가 1947년 5월 17일자인 3호부터 일간으로 발행되었다. 다른 신문들과 달리 이 신문은 비교적 오랫동안 발행되어, 1947년 말 이후 여성신문으로서는 독보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정부수립 후에도 계속 발행되던 이 신문은 1949년 4월 1일에 『부인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어 발행되다가¹²⁾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에 종간되었다.

11) 『여성신문』 마이크로 필름자료에는 1947년 7월 2일자(56호)까지 실려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연표』에는 1947년 7월 17일(68호)까지 일간으로 발행되다가 휴간된 후 다시 7월 27일에 속간되어 8월 15일(71호)까지 근근히 발행되었으며, 정확한 종간 일자는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계훈모 1987, 237쪽). 한편 1948년 1월 현재 『여성신문』은 무기정간 중이고, 『부녀일보』는 허가가 자동 취소되었다는 기록도 있다(『부인신보』 1948. 1. 16).

12) 『부인신보』 마이크로 필름 자료에는 1949년 신문이 빠져 있다. 그러나 1948년의 신문과 달리 1950년 신문에는 『부인신문』이라는 제호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이렇듯 미군정기에는 5개의 여성신문이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휴간이 잦고 발행기간도 상당히 짧은 편이었다. 즉 『부인신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 실제 발행기간이 1년도 되지 못했다.

2) 여성운동의 조직과 이념

해방 직후 좌우익 정치세력이 모두 참여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좌우익 여성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1945년 8월 17일에 건국부녀동맹을 만들었다(문경란, 1989, 32~37쪽).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세력이 좌우익으로 대립하게 되었듯이 여성단체도 곧 분열되고 말았다. 9월 6일에 일부 우익계 여성들이 건국부녀동맹을 탈퇴해 9월 10일에 한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고, 12월 8일에는 박순천, 황기성 등 나머지 우익계 여성들도 탈퇴해 1946년 1월 9일에 독립촉성애국부인단을 결성하였다(이승희, 1994, 66~68쪽). 또한 이미 1945년 9월 3일에는 임영신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승만의 ‘추종 세력’이었던 여자국민당이 결성된 바 있었다.

우익계 여성들이 탈퇴한 이후인 1945년 12월 22일에는 좌익계 여성들이 주도해 조선부녀총동맹이 결성되었다(송연옥, 1985, 71~76쪽). 한편 한국애국부인회와 독립촉성부인단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우익 여성단체들도 독립촉성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다(한국부인회총본부, 1985, 19쪽). 박승호를 위원장으로, 황기성과 박순천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본격적인 출발을 한 독립촉성애국부인회는 이승만 중심의 우익진영과 긴밀히 밀착되어 있었으며, 미군정치의 호응도 받았다(문경란, 1989, 66~68쪽).

두 여성단체가 지향하는 국가의 성격은 달랐지만 모두 국가수립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부녀총동맹이 대체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이라는

1949년 중에 게재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주필이던 전희복은 1949년 4월 1일(음력 3월 3일로 표기)에 『부인신문』으로 제호가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전희복, 1950, 40~44쪽).

목표를 제시했던 반면에 독립촉성애국부인회는 여성의 자질 향상, 여권 향상, 현모양처주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문경란, 1989, 38~82쪽; 이승희, 1994, 88~92쪽). 현실적으로 두 여성단체 모두 좌우익 정치세력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기의 “여성운동은 정치적 흐름들과 연계되어 본연적 여성운동보다는 좌우파의 정치적 지원운동에 치중되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박용규, 2001, 514쪽).

이렇듯 여성단체들은 좌우익 정치세력들과 보조를 맞추어 정치활동을 해 나가면서도, 여성을 상대로 한 계몽활동 등을 해나가기도 했다. 좌우익 여성단체들은 계몽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방법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문경란, 1989, 38~82쪽). 좌우익 여성단체들은 모두 문맹퇴치와 의식계몽운동을 주로 전개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교육수준이 너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봉건적 인습이 여전히 여성을 얽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이승희, 1994, 47~58쪽; 이배용, 1996).

1947년 2월 10일에 조선부녀총동맹은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재출발했지만, 좌익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이승희, 1994, 166~172쪽). 반면에 1946년 11월 15일에 독립촉성애국부인회와 여자국민당 등 8개 단체들이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을 결성한 이후 우익여성단체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문경란, 1989, 98~104쪽). 총선거 실시 결정 이후 우익여성단체들은 본연의 여성운동보다는 자신들의 국회 진출을 위한 정치활동에만 주력했다. 실제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는 여성단체 등에 소속된 여성 16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입후보했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는 못했다.¹³⁾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상승과는 무관하게 가부장적인 남성 정치지도자의 후광으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남녀 차별적 사고”가 지배하던 현실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이다(손봉숙·박

13)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7명, 대한부인회 3명, 조선여자국민당 2명, 대한독립촉성국민총연맹 2명, 여성단체총연맹 1명, 애국부인동지회 1명 등이었다(이배용, 1996, 192~196쪽).

의경, 2000, 62쪽).

3) 여성운동과 여성신문

좌우익 여성단체들이 모두 계몽활동에 치중했던 만큼 나름대로 미디어 발행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좌익 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은 신문 창간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편 우익여성들은 1946년 3월 25일의 ‘이박사부인환영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관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가 이루어져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제호를 『부인신보』로 결정하며, 기획서와 인장까지 마련했다고 한다(『부인신보』 1947. 5. 3). 다만 우익여성들도 이 때 바로 신문을 발행하지는 못했고, 1년 뒤에야 비로소 『부인신보』를 창간할 수 있었다.

1946년에 창간된 여성신문들에는 여성단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가정신문』의 발행인 이취성은 여자국민당의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다(『동아일보』 1946. 6. 2). 따라서 이 신문은 여자국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¹⁴⁾ 철저히 이승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취성의 남편으로서 이 신문 경영의 실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던 이종형이 독립촉성국민회의 선전부장을 맡는 등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벌였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 신문은 『대동신문』이 여운형 암살사도 사건에 대한 보도로 정간을 당한 후 그 역할을 대신하는 편집체제로 발행하다가 미군정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가정신문』 1946. 5. 25).

『부녀신문』의 편집국 차장을 맡았던 노천명은 건국부녀동맹 결성에 참여한 바도 있고,¹⁵⁾ 한때 좌익계 문인단체인 문학가동맹에 참가하기도 했다(김

14)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일점홍(一點紅-여자국민당)이라는 제목의 1947년 6월 15일자 사설이다.

15) 당시 한 신문에는 노천명이 건국부녀동맹의 5인 준비위원 중 1명으로 나와 있다(『매일신보』 1945. 8. 17). 또한 노천명은 팔로군의 ‘여장군’으로 활동하다 귀국해 조선부녀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을 맡고 있던 김명시에 관한 글인 “김명시 여장군의 반생기”를 『신천지』 1946년 3월호에 기고하기도 했다.

용직, 1999, 138쪽). 이 신문이 여성단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천명의 참여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발행인 우덕순은 안중근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로 (『조선일보』 1946. 5. 10) 뒤에 국민당 등 우익계 정당에서 활동하였다(『조선일보』 1946. 10. 2). 한편 편집국장 박노아는 일제하에 개벽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좌익계 극작가였다(유민영, 1997, 398~412쪽).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창간호에는 조선부녀총동맹 위원장 유영준과 한국애국부인회 위원장 유각경의 글이 함께 실려 있었다(『부녀신문』 1946. 5. 12). 발행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적 구성이나 창간호 내용을 볼 때 이 신문은 대체로 중간과 정도의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부녀일보』는 여성단체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은 물론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의 참여도 없었다.¹⁷⁾ 이 신문은 조선부녀총동맹이나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같은 좌우의 여성단체의 기사를 모두 실어주었고(『부녀일보』 1946. 11. 15; 1946. 11. 27), 좌우합작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좌우대립을 풍자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부녀일보』 1946. 10. 23; 1946. 11. 11).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체로 중간과적인 입장에서 여성단체 관련 기사를 실어 주기도 했던 신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7년에 창간된 두 신문은 여성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여성신문』 발행인 황기성은 우익 여성단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황기성은 독립촉성부인단의 초대 회장,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부위원장,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의 부회장 등 여성단체의 대표를 맡았었다(문경란, 1989). 또한 황기성은 한독당의 부녀부장(노경채, 1996, 319쪽), 독립촉성국민회의 부녀부장을 맡기도 했었다(김보영, 1994). 그러나 한독당계였던 황기성은 이승만 추종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게된 여성단체에서 1946년 말에 물러나와 얼마 뒤에 『여성신문』을 창간했던 것이다. 이 신문은 여성단체가 조직적

16) 창간호 1면에는 홍명희, 여운형, 하지 장군의 추사와 김구의 휘호가 실려 있다.

17) 편집국장을 지낸 최석채는 “허가를 내기 위해 제호만 『부녀일보』라고 했을 뿐, 내용은 다른 신문과 똑같았다”고 회고했다(오효진, 1986, 192쪽).

으로 참여해 발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황기성에 의해 발행됨으로써 여성운동과 밀접히 관련된 논조를 보였다.

여성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해 발행했던 유일한 신문이 바로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기관지『부인신보』였다. “여성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신문, 즉 여성관계 기사를 많이 다루는 신문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신문 발행이 추진되면서 그 실무 책임을 박순천이 맡았던 것이다(박순천, 1978, 381쪽). 이 신문은 우익계 문학단체 소속 남성 문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구상, 1978; 최태웅, 1978), 1947년에 8월에는 『동아일보』와 『대동신문』 등 보수우익 신문들이 주도해 결성된 조선신문기자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계훈모, 1987, 288~289쪽).

이렇듯 『부녀일보』를 제외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은 여성운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특성은 여성신문들이 모두 여성운동의 수단으로서 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단체와의 관계나 참여 인물들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가정신문』이나 『부인신보』는 ‘극우파’, 『여성신문』은 ‘우파’, 『부녀신문』과 『부녀일보』는 ‘중간파’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런 이념적 성향은 여성신문이 본연의 여성운동보다는 좌우익 대립 속에 정치활동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4) 여성신문의 경영과 편집

미군정기 대부분의 신문들처럼 여성신문도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다.

18) 미군정은 『가정신문』을 ‘극우’로, 『부녀신문』을 ‘중도’로 분류했다(HQ, HUSAFIG, 1946/1986, 645~649쪽). 『가정신문』, 『여성신문』, 『부인신보』은 ‘극우’, 『부녀신문』은 ‘중도’, 『부녀일보』는 ‘중도좌’로 분류한 자료도 있다(이배용 외, 1996, 92쪽). 한편 『부녀신문』이 ‘좌익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한 자료도 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457쪽).

여성신문으로서 교육수준이 낮고(이배용 외, 1996, 12~13쪽) 경제적 능력도 별로 없던 여성들을 상대로 독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¹⁹⁾ 정치세력의 적극적 후원을 얻기도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극히 일부 지식인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문을 읽지 않던 상황에서²⁰⁾ 여러 개의 여성신문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미군정기 여성신문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은 휴간이 잦고 발행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부인신보』가 사옥으로 적산 건물을 제공받고(최은희, 1980, 311~312쪽),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조직을 이용해 도금을 하거나 보급을 함으로써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었다(『부인신보』 1947. 5. 18; 1947. 8. 6; 1947. 8. 28). 하지만 박순천이 “신문이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느냐”하는 심정으로 신문을 운영했다고 회고했을 정도로(박순천, 1978, 384~385쪽) 『부인신보』의 운영상태도 별로 좋지는 못했던 것 같다.²¹⁾ 또한 『대동신문』이 적산 시설을 이용해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자매지였던 『가정신문』도 그나마 다른 여성신문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신문조차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여성신문의 경영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수단으로 발행된 여성신문에 여성의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다. 『가정신문』에 1946년 한 때 모윤숙이 주필로 있었고(『가정신문』 1946. 7. 22), 『부녀신문』에는 노천명이 편집국 차장

19) 1946년 5월경의 발행부수가 『가정신문』은 4만부, 『부녀신문』은 1만 5천부라는 기록이 있다(HQ, HUSAFIG, 1946/1986, 645~649쪽). 그러나 이 기록은 신문사 측이 주장한 부수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부인신보』는 “신문을 안보는 사람들”이란 글을 통해 여성들이 너무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신문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부인신보』 1947. 6. 29).

21) 주필이던 전희복은 창간 1주년을 맞이해 쓴 글에서 『부인신보』가 사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혔다(전희복, 1950, 20쪽).

으로 있던 정도였다. 『부녀일보』의 경우 여기자를 채용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²²⁾ 1947년 6월의 한 조사를 보면 서울에 19명의 여성 신문기자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여성신문의 기자로는 『부인신보』의 모운숙, 전희복, 임옥인과 『여성신문』의 2명의 여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발행되고 있던 『가정신문』에는 단 한 명의 여기자도 없었던 셈이다. 『부인신보』에는 앞에서 언급된 3명 외에도 뒤에 여기자를 추가로 채용해 여기자의 활동이 그나마 비교적 활발했지만(대한언론인회, 1993, 314~320쪽), 대부분의 여기자들이 그리 오랫동안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²³⁾

미군정기의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신문도 창간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발행되었다. 신문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1면은 사설, 정치기사, 외신들이 차지했고, 2면에는 경제, 사회, 문화기사들이 실렸다. 여성관련 기사는 2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여성문제에 대한 각종 칼럼과 해설, 여성단체의 동정, 생활정보, 독자투고²⁴⁾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그나마 많지 않은 여성기사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면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다.²⁵⁾

22) 『부녀일보』에는 세 번이나 여기자 모집공고가 나왔다(1946. 11. 11; 1946. 8. 10; 1947. 11. 19). 또한 필자가 K기자라고 되어 있는 글에 “여기자가 다 무엇이나 비웃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여기자가 있었던 것 같다(『부녀일보』1947. 4. 5).

23) 모운숙의 회고록에는 여성신문들에 재직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모운숙, 1968). 실제로 재직기간도 짧았고, 전업언론인도 아니었던 듯하다. 임옥인도 『부인신보』에서 불과 5달 정도 기자생활을 했다고 한다(임옥인, 1985, 97~98쪽).

24) 다른 신문과 달리 『여성신문』은 독자투고란인 ‘여성의 소리’나 상담기사인 ‘어찌하리까’ 등을 실어 여성신문다운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25) 『가정신문』이나 『부인신보』는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정치적 사안이 생기면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전 지면을 차지하다시피 했다. 박순천도 스스로 “여성을 위한 신문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치·경제·사회 등 일반 기사에 치중하

이렇게 된 데는 여성신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발행 주체들의 의식의 한계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신문답게 지면을 꾸려나갈 만한 역량이 크게 부족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체로 취재 인력이 크게 부족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문제를 취재할 수 있는 기자의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성신문다운 내용으로 제대로 지면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나머지의 여성 관련 기사도 본격적인 취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3. 미군정기 여성신문의 논조

1) 여성 관련 사설의 양과 주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은 휴간이 잦아서 발행기간에 비해 발행호수가 적고, 그나마 보존상태가 좋지 못해 결호도 많다. 또한 당시의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사설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분석 대상이 된 사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²⁶⁾ 특히 『부녀일보』의 경우에는 총 319호가 발행되었지만 사설이 게재된 경우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²⁷⁾ 따라서 창간호만 남아 있는 『부녀신문』과 사설이 단 두 건밖에 실리지 않은 『부녀일보』는 당연히 논조 분석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것을 조정하기에 고심하던 일도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박순천, 1978, 384쪽).

26) 본 논문에서는 사설 위치에 실린 무기명 시평 또는 평론도 포함했고, 사설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했다.

27) 『부녀일보』에는 1946년 10월 8일에 “남녀동권에 대하여”, 1946년 12월 14일에 “의정당상의 여성대표”라는 제목의 사설 두 편을 제외하고는 아예 사설이 실리지 않았다.

<표 1> 여성 관련 사설의 수

호 수 신문명	총 발행호수	결호 제외 호수	사설 게재 호수	여성 관련 사설
가정신문	259	195	117 (60.0)	23 (19.6)
여성신문	42	40	17 (42.5)	11 (64.7)
부인신보	376	363	124 (34.1)	44 (35.5)

주: () 안은 앞의 항목 전체 호수에 대한 해당 항목 호수의 비율

<표 1>에서 보듯이 미군정기 여성신문들의 사설 게재 비율이 낮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설을 집필할 만한 역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신문지면 중 상당 부분을 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나 외부 필진의 기고로 채웠던 반면에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사설은 자체적으로 집필하려고 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설을 게재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지만 비슷한 내용의 사설이 반복해서 게재되는 경우조차 있었다.²⁸⁾

또한 전체 사설 중에 여성관련 사설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었다. 여성신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문제에 관한 사설만을 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신문들치고는 적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 관련 사설의 비율이 낮은 것은 당시의 여성운동이 정치활동에 더 치중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나마 여성이 발행인으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신문들의 여성관련 사설 게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여성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8)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는 사설뿐만 아니라 아예 똑같은 내용의 사설을 두 번 실었던 적도 있었다. 『부인신보』의 1947년 5월 27일 사설 “계몽운동 서로 깨우치자”는 1947년 7월 13일에 그대로 다시 실렸다. 양적 분석에는 이 사설들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였다.

<표 2> 여성 관련 사설의 주제별 건수

주 제 신문명	계몽과 교육	가정 생활	사회 활동	합계
가정신문	6 (26.0)	7 (30.4)	10 (43.5)	23 (100)
여성신문	3 (27.3)	3 (27.3)	5 (45.4)	11 (100)
부인신보	8 (18.2)	5 (11.4)	31 (70.4)	44 (100)
합계	17 (21.8)	15 (19.2)	46 (59.0)	78 (100)

주: () 안은 각 신문의 여성 관련 사설 중에서 개별 주제를 다룬 사설의 비율

여성 관련 사설의 수가 적어 그 비율을 놓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표 2>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여성 관련 사설을 여성의 계몽과 교육, 가정 생활, 사회 활동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신문』의 경우 다른 신문에 비해 가정생활에 관한 사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부인신보』의 경우 사회활동에 관한 사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정신문』의 경우 계몽과 교육을 강조하는 사설들조차 결국은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사설로 다룬 비율이 더 높았다고도 볼 수 있다(『가정신문』1946. 8. 10; 1946. 9. 10). 제호가 이미 말해주고 있고, 창간호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²⁹⁾ 『가정신문』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비교적 자주 다룬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인신보』가 사설의 주제로서 사회 활동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다룬 것은 이 신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회활동을 다룬 사설들의 대부분은 국가수립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거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부인신보』1947. 11. 20; 1948. 3. 24). 이것은 결국 『부인신보』가 여성문제보다는 일부 여성들의 정치적 목적을

29) 『가정신문』은 창간호 기사에서 “가정은 국가의 기본이요, 민족은 가족의 연장이 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219쪽).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여성의 계몽과 교육에 관한 주장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은 모두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여성신문들은 대부분이 여성의 지식수준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정신문』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런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 여성들의 지식수준이 향상되면 남녀평등을 운동하지 않을지라도 저절로 평등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여성의 지식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것이 밭짓고 남성의 시중 드는 일 외에 아무 것도 모르는 까닭에 자연 천대밖에 받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먼저 지식향상을 도모하고 자기 인격을 완성하여 아내와 어머니의 직책을 다하며 새로운 조국 건설에 애국의 열성을 받치어서 조선 부녀의 아름다운 덕성에 외국의 남성까지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지게 존경을 표하도록 할 것이다(『가정신문』 1946. 3. 25).

또한 『가정신문』은 “모여서 같은 것을 감상하고 작품을 논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싶다”거나(『가정신문』 1946. 7. 13), “우리 여성은 높은 교양을 목표로 자기를 미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완전한 예술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정신문』 1946. 9. 17). 또 독서를 통해 상식을 늘려야만 “원만한 주부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가정신문』 1946. 8. 10; 1946. 9. 10). 『가정신문』의 주장은 여성들이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고, 독서를 해야만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남녀평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여성신문』도 “우리는 먼저 새 시대에 적용할만한 교양과 새로운 이성파 실력을 쌓아”야 한다거나(『여성신문』 1947. 5. 15), “우리는 먼저 지식을

연마하여 실력을 길러야 되고 지성을 향상함으로써 완전한 남녀동등을 획득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여성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성신문』 1947. 5. 23). 또한 『여성신문』은 여성들이 “언행을 반성”해야 한다거나 “말부터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여성신문』 1947. 5. 15; 1947. 5. 20).

『부인신보』도 “남녀평등을 입으로만 부르짖음은 아무 보람없는 행동에 지나지 못한다. 자기교양과 실력으로써 우러나오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평권(平權)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부인신보』 1947. 6. 12). 또한 “모르는 여성은 이 시대로부터 또는 모든 남성으로부터 확대와 모욕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는 여자 즉 지식의 수준이 높은 여자일수록 자기자신을 스스로 수습할 수가 있고 모든 세상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고도 주장했다(『부인신보』 1947. 10. 11).

이런 내용은 『부녀신문』의 창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과거의 봉건제도와 인습에 젖은 자신의 그릇된 관념과 타성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엔 남성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그 부여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만한 교양과 식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부녀신문』 1946. 5. 12).

당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모든 여성신문들이 우선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강조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교육이 “여성을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 규정하고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로서 주장된 것이 아니었고,³⁰⁾ “여성억압의 구조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윤택림, 1994, 102~105쪽)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 특히 『가정신문』이 마치 여성이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신문의 가부장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30) 근대 이후 “부르주아 여성운동”의 담론에서 주요 쟁점은 여성교육이었지만, 그 주된 내용은 “민족독립을 위한 개명한 현모양처”에 국한되었을 뿐 “반봉건적인 가부장제의 개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문소정, 1999, 96~98쪽). 이 점은 미군정기에도 마찬가지였다.

3) 가정생활에 관한 주장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은 사설에서 주부의 역할이나 어머니의 책임 등을 자주 다루었다. 특히 『가정신문』은 “가정을 조직하고 그를 지도하는 책임자는 부인”이라거나, “주부는 국가의 정승과 같다”고 하며(『가정신문』 1946. 3. 27; 1946. 4. 4) 가정 내 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제한된 살림비용을 가지고 고심 전투하는 주부의 수고를 헛되이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의식주와 관련된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책임자가 우리 주부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가정신문』 1946. 7. 21; 1946. 9. 24). 『가정신문』의 이런 주장은 아래와 같은 독특한 입장에 근거한다.

흔히 부업을 지키는 일이며 아이를 기르는 일을 일종의 구속이라는 생각아래서 이런 일들을 거부하는 것이 여자의 해방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 …… 일 자체가 천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천하게 본 것뿐이다. 관념상 천하게 보았을 뿐이다. 그 관념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이 신성한 부업에 남자의 용해를 단연 일축하고 여자로서 이 진영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 우리의 부업과 우리의 가정을 여자로서 지키자(『가정신문』 1946. 6. 14).

『가정신문』의 이런 주장은 가사와 육아가 매우 ‘신성한’ 일인만큼, 이런 일을 하는 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현모양처이자 살림꾼으로서의 주부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에 불과했다. 『가정신문』이 주부는 “부모에게는 지성으로 공양하고 남편에게는 화한 빛으로 뜻을 어기지 말며 자녀들에게는 일상 자애함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가정신문』 1946. 4. 4).

결국 성별 분업을 강조하는 이 같은 주장은 『부인신보』에도 나타난다. 『부인신보』도 “부업일을 맡은 주부로부터, 가정정리를 맡은 주부로부터 깊은 각성과 결의와 실행이 있어야 하겠다. 행주치마를 가뿐히 두르고 우선 우리는 깨끗이 치울 줄 알고 좀더 능률적으로 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

이다”라고 주장하였다(『부인신보』 1947. 6. 5). 이렇듯 여성이 발행인이었던 『부인신보』조차도 주부들이 주로 ‘부업일’과 ‘가정 정리’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성별 분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한 사실이 게재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신문들은 가정 내 어머니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우선 『가정신문』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이 같은 충신, 효자, 열녀, 애국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날에는 조선은 그야말로 세계에 빛나는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가정신문』 1946. 5. 25). 『여성신문』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 일찍 온갖 불리한 조건 아래서도 항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질서 있는 가정, 예절 있는 가정, 품격 있는 가정으로 유지하여 왔고, 또 허다한 위인을 낳고 길러왔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였다(『여성신문』 1947. 6. 25).

『부인신보』도 위의 두 신문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큰 인물은 거의 다 위대한 어머니의 힘으로 된 것이다. …… 모성에 그대로를 흠 없이 발휘하라”고 주장하였다(『부인신보』 1947. 5. 28).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모성의 인격이 자녀 장래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만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각성과 자기완성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부인신보』 1947. 7. 29).

이렇듯 여성신문들은 마치 여성이 가정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역할만을 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특히 『가정신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주장들은 일제하의 ‘신현모양처론’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들로서,³¹⁾ 미군정기 여성신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31) 신현모양처론은 여성이 가계를 합리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생활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현모양처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신영숙, 1999, 111~119쪽).

4) 사회활동에 관한 주장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은 대체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형모양처로서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부인신보』의 사설은 이런 점을 잘 보여 준다.

우리는 착한 아내와 어진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계속하되 남편 개인을 위함이 아니오 자식 그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착한 아내요 어진 어머니로 자처하려 한다. …… 우리 일천 오백 만 여성은 다시 입술을 깨물어 현모양처의 굳은 진리를 엄수하려 한다. 그러나 뼈와 피를 통한 조국의 암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 진리를 순종할 결심이다.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여자가 지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고 오랫동안 지켜오던 습관이나 그대로 앉아 현상유지로 깨칠 것은 깨치고 새로 세울 것은 세워서 나라를 빛내게 하는 일에 싸우는 여성이 되자. 남자만이 나라를 세우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부인신보』 1947. 10. 5).

이렇듯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든 여성신문들은 국가수립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가정신문』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독립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정신문』 1946. 8. 15). 『여성신문』도 “우리 여성으로서 남성에게만 맡기고 추종만 할 수는 없다. …… 특히 여성으로서의 주의주장을 뚜렷이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성신문』 1947. 5. 28). 『부인신보』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에만 머리를 쓰지 말고 먼저 독립운동에 필요한 생각과 조직과 행동을 전개하기에 심혈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인신보』 1947. 11. 20).

『가정신문』이 대체로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성들이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여성신문』과 『부인신보』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성신문』이 대체로 좌우합작을 위한 여성 나름대

로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여성신문』 1947. 5. 15; 1947. 6. 1), 『부인신보』는 여성들이 우익만의 국가수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부인신보』 1947. 7. 25)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부인신보』는 여성들이 국가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여성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인신보』는 “우리 여성의 낙후된 지위 역시 민족의 비원인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을 진취(戰取)하는 날에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부인신보』 1947. 7. 25). 또한 “통일 없이 독립 없고 독립 없이 아내도 어머니 노릇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부인신보』 1948. 2. 1). 이런 주장들은 일제하의 여성운동이 ‘민족독립’을 ‘여성해방’보다 앞세웠던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고(윤택림, 1994, 102~105쪽), 이제는 단지 ‘국가건설’이 여성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뿐이었다(이배용, 1996, 210~213쪽).

이렇듯 국가건설 과정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었던 반면에 정작 여성신문들이 여성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주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정신문』은 “해방 이후의 여성운동을 개관해볼 때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 남성의 국민운동이나 정치운동과 비교하여 아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여성운동의 역할을 ‘대중의 계몽’과 ‘어린 국민들의 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가정신문』 1946. 7. 5). 『부인신보』도 “여성은 또한 여성만이 알고 여성만이 느끼고 여성만이 해야 할 여성만의 생활규범을 엄연히 따로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부인신보』 1947. 5. 8). 단지 여성단체에 젊은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거나(『가정신문』 1946. 8. 28; 『부인신보』 1947. 12. 21), 공창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부인신보』 1948. 2. 15; 1948. 2. 17; 1948. 2. 20).

총선거 실시를 목전에 두고 『부인신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여성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부인신보』는 “독립은 하더라도 여성해방과 재래 모든 습관에서 새 세대를 향해서 대처해야 할 유일의 길은 오직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여 국회의 일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

였다(『부인신보』 1948. 3. 24). 또한 “우리 여성은 오직 국력을 회복할 때까지 여권문제를 대두시키려 하지 않으려 했고 오로지 독립만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 …… 여권 운동의 첫 단계가 왔다고 자각하였기 때문에 나가려 한다”고 주장하였다(『부인신보』 1948. 4. 8). 나아가 “우리가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남성들의 노예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부인신보』 1948. 4. 13) “이번 투표로 우리 여성의 새 역사는 광명으로 혹은 암흑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부인신보』 1948. 5. 7). 이렇듯 『부인신보』가 갑자기 여성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여성의 국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바로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소속 여성들이 대거 입후보했던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신문들이 여성 참정권이 실현된 현실에서 여성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부인신보』가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거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신보』는 “소위 여성 단체에 가입하여 여성운동을 한다고 날뛰는 분들까지도 남성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여성으로서 실로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여성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층 더 철저한 여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부인신보』 1948. 5. 14). 다시 한번 『부인신보』는 “우리는 앞으로 철저한 여성운동을 한층 더 열렬하게 전개하기를 굳게 약속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부인신보』 1948. 6. 19). 이 같은 주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동안의 여성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엘리트 여성 중심’의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었다.

4. 연구의 요약과 결론

미군정기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가 5개나 발행되었다는 것이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발행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5개중에 3개의 여성신문 발행인이 여성이었고, 대부분의 신문에는 적은 수나마 여성운동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 스스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일간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여성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신문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성일간지가 5개나 발행되었지만, 현실적 조건은 이런 신문들이 제대로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했다. 우선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휴간이 잦고 발행기간이 짧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여성신문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아, 여성이 발행인을 맡고 있던 신문에조차도 여성 언론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신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성신문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논조에서도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성의 계몽과 교육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여성의 자질이 향상되면 자연히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을 뿐 여성 억압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한 주장들은 여전히 성별 분업론에 얽매이고 민족문제를 앞세우는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들이었다. 즉 가정생활에 관한 주장은 일제하의 신현모양처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고, 사회활동에 관한 주장에서도 '민족해방'에서 '국가수립'으로 민족적 과제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런 민족적 과제가 여성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시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만의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계몽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여론화시키고자” 했던(이배용, 1996, 198쪽)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즉 비록 제한된 범위내의 여성들만이 독자들이었지만, 어쨌든 여성신문들이 당시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상승과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여성의 정계 진출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미디어가 진정으로 여성해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군정기의 여성신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미디어가 여성주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여성해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여성해방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여성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주의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개발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여성주의 미디어를 지향하는 여성미디어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의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군정기 여성신문들의 사실 이외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계몽을 위해 발행되었던 구한말이나 일제하의 여성잡지들은 물론 여성운동과 관련된 해방 이후의 다양한 여성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성미디어들이 각 시기마다 여성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성해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당시의 일반 여성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을 통해 참다운 여성주의 미디어의 등장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상 (1978). 생명수 같았던 승리일보에서의 혼신.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389~401쪽).
- 계훈모 편 (1979). 『한국언론연표』 II. 서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 김미령 (1985). 『한국여성잡지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1994).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78). 『데국신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직 (1999).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서울: 한학문화.
-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집, 18~52.
- 김인옥 (1985). 『한말 여성계몽운동에 관한 연구-계국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 (1996). 국내 페미니스트 언론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보』, 38호, 159~202.
- 노경채 (1996). 『한독당 연구』. 서울: 신서원.
- 대한언론인회 (1993). 『한국언론인물사화』8·15후편 (상).
- 모운숙 (1968). 『회상의 창가에서』. 서울: 중앙출판공사.
- 문소정 (1999). 한국 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69~87쪽), 서울: 나남.
- 박순천 (1978). 백 삼십만원으로 출발한 부인신문. 한국신문연구소(편), 『언론비화 50편』 (377~388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박용옥 (1996). 1920·1930년대 여성잡지 ‘부인’과 ‘신여성’. 『한국여성 항일운동사』(287~300쪽). 서울: 지식산업사.
- 박용옥 (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 박정순 (1997). 젠더적 사고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페미니스트 패러다임. 박정순·김훈순 (편),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19~73쪽). 서울: 나남.
- 손봉숙·박의경 (2000).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서울: 도서출판 풀빛.

- 신영숙 (1999). 일제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 『여성연구논총』, 14집, 101~122.
- 송연옥 (1985). 朝鮮婦女總同盟: 8·15 直後の婦女運動. 조선민족운동사연구회 (편), 『조선 민족운동사연구』, 제2호, 동경: 청구문고, 63~102.
- 영남일보사 (1996). 『영남일보 50년사』.
- 오효진 (1986. 1). 퇴역한 현역 최석채. 『월간 조선』, 184~210.
- 유민영 (1997). 『한국현대회곡사』. 서울: 새미.
- 윤택림 (1994).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집, 86~119.
- 이경자 (1971). 『한국여성잡지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용 (1996).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역사학보』, 150집, 159~214.
- 이배용·김정선·이승희·김점숙·김수자 (1996).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Ⅳ(1945년~1948년). 『여성학 논집』, 제13집, 9~93.
- 이승희 (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서울: 백산서당.
- 이연정 (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21~41쪽). 서울: 나남.
- 이옥진 (1979).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권신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옥인 (1985). 『나의 이력서』. 서울: 정우사.
- 전희복 (1950). 『거울 앞에서』. 서울: 문예사.
- 정진석 (1995). 『인물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최은희 (1980). 『여성전진 70년: 초대 여기자의 회고』. 서울: 중앙출판인쇄.
- 최선렬 (2000). 페미니즘이 언론학에 미친 영향. 『여성학논집』, 제17집, 115~165.
- 최태웅 (1978). 내가 마지막 본 평양 “33호”.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543~556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한국부인회총본부 (1986). 『한국여성운동약사』. 서울: 한밤의 소리사.
- 한국신문연구소 (1975). 『한국신문백년: 사료집』.
- 한국신문협회 (1968). 『한국신문연감』.

- Henry, S. (1989). Changing media history through women's history. In P. J. Creedon (Ed.), *Women in mass communication* (pp. 34~57). Newbury Park, CA: Sage.
- HQ, USAFIK (1945 · 1946), *G-2 weekly summary* (1945. 9~1946. 5), 일월 서각 (1986). 『미군정 정보보고서』, 11권.
- Robinson, G. J. (1978). Women, media access and social control. In L. K. Epstein (Ed.), *Women and the news* (pp. 87~106). New York: Hastings House.
- Steiner, L. (1992).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women's alternative media.. In L. F. Rakow (Ed.), *Women making meaning* (pp.121~143). New York: Routledge.
- van Zoonen, L. (1995).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media.. In N. Curran (Ed.), *Mass Media and Society, 2nd Edition* (pp. 31~52). London: Edward Arnold.

(최초투고 2002. 9. 2, 최종논문 제출 2002. 10. 10)

Women's Newspapers and Women's Movement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Yong-Gyu Park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Sangji University

Because most of feminist researches on the media have been primarily concerned with women's roles and representations in main stream mass media, women's media as alternative media remain remarkably understudied. Thus this study explores women's media in relation to women's movement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re were five women's newspapers which were means of women's movement in this period. However, failing to attract enough appropriate revenues and resort to fund-raising, women's newspapers could not be published a long time. And women's newspapers as means of women's movement had the defects in women's representations because women's movement lacked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from the male-dominated political activities. In other words, women's newspapers maintained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reas, but on the other hand they emphasized the women's role as mother and housewife.

Keywords: women's media, women's newspaper, women's movement